

'빛고을독서마라톤' 4,247명 완주

광주일보·광주시교육청 공동 주최 일반 전현주씨·학생 박을진양 1위

광주일보가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시상식이 3일 오후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무한도전' 일반 부문에 도전한 전현주(여·일반)씨가 광주일보 사장상을 받았고, 학생 부문에선 박을진(진만초 4년)양이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문에서 3연패의 쾌거를 달성했다.

심사 기준은 ▲목표 분량 달성 여부 ▲구준한 독서를 바탕으로 한 성실성 ▲충실성이 스며든 감상평 ▲독서 분야의 다양성 등을 평가했다.

대회 심사는 모든 완주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 수상자의 2배수를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실시했다.

상으로 한 2차 심사, 도서 구입 및 도서 대출 이력을 제출받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3차 심사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열린 이번 대회에는 1만5천192명이 참가해 4천247명의 완주자를 배출했으며, 무한도전, 개인 5km, 개인 10km, 단체 하프코스, 단체 풀코스, 가족 하프코스, 가족 풀코스 등 7개 부문에 걸쳐 총 146명의 수상자와 특별상 3개 학교를 선별했다.

▲빛고을독서마라톤=광주일보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독서에 접목한 것이다. 참가자가 읽은 책 1쪽을 1m로 환산해 부문별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린다.



광주일보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범 시민운동인 '제3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시상식이 3일 오후 시 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근한立春

광주·전남 낮 최고 14도

입춘(立春)인 4일은 구름이 가끔 끼고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다소 끼고 포근하겠다"고 3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평년 기온보다 8~9도 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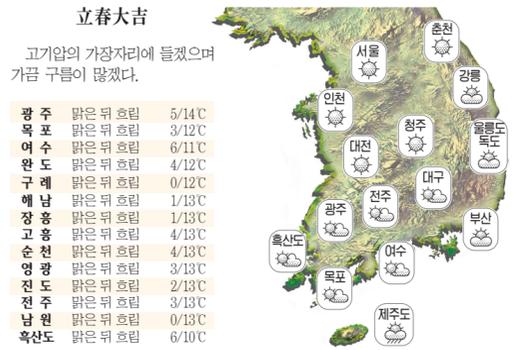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0.5~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다.

기상청은 연일 계속된 포근한 날씨에 대해 중국남부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으로부터 따뜻한 남풍이 지속됐고, 맑은 날씨에 따른 풍부한 일사량으로 고온현상이 지속된대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며, 2월 중순경에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9분 해질 18시 04분 달출 12시 07분 달질 02시 12분



지역	날씨	최저/최고
광주	맑은 뒤 흐림	5/14
목포	맑은 뒤 흐림	3/12
여수	맑은 뒤 흐림	6/11
완도	맑은 뒤 흐림	4/12
구례	맑은 뒤 흐림	0/12
해남	맑은 뒤 흐림	1/13
장흥	맑은 뒤 흐림	1/13
고흥	맑은 뒤 흐림	4/13
순천	맑은 뒤 흐림	4/13
영광	맑은 뒤 흐림	3/13
진도	맑은 뒤 흐림	2/13
전주	맑은 뒤 흐림	3/13
남원	맑은 뒤 흐림	0/13
속초	맑은 뒤 흐림	6/10

의료계, 님은꼴 병원 이름 '진통'

명칭 등 사고 곳곳 소송 등 법적 분쟁 일어

지역 의료계에서 비슷한 병원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적축디스크 질환 전문으로 유명한 우리들병원이 비슷한 병원 이름과 로고를 사용한 대전 W척추병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면서 그 불씨가 광주에까지 튀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국내 5곳과 중국 1곳 등 6개 병원을 두고 있는 우리들병원은 대전 W병원이 홈페이지나 병원 내부는 물론 환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들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거나 병원 명칭을 사용한 광주 S병원과 울산 U병원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S병원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우리들병원이라는 명칭을 버렸으며, 양측의 협력병원 관계가 지난 1월 말로 끝난 만큼 이달 안에 각종 홍보물 등 우리들병원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분을 모두 없애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안과 전문병원인 '밝은안과21'은 최근 병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7명의 의사가 견해가 엇갈리면서 두 개의 병원으로 나

뉘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명칭도 한쪽은 '밝은안과21'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쪽은 '광주밝은안과'로 새롭게 문을 여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양측의 의사들은 병원 분리를 막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병원 명칭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는 양측이 현재 새롭게 정한 병원 건물의 위치가 기존 병원을 사이에 두고 직선 거리로 30m 정도 밖에 안돼 경영상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교원평가제' 본격 확대

시범학교 1천500곳으로...전교조 거센 반대

내년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올해 본격화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시범학교)로 전국에 걸쳐 초·중·고 1천500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의 12% 수준으로, 작년 시범학교 수(669곳)의 2.2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도 시범 학교수의 확대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2005년 2곳을 시작으로 2006년 3곳, 2007년 8곳, 2008년 11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만간 교과부의

지침이 확정되면 시범 학교수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2005년 3곳, 2006년 2곳, 2007년 24곳, 2008년 44개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64개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제에 강력히 반대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과부는 교육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교원평가 법제화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승진제도 개혁과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복업체 4社 가격 인하 나섰다

연예인 광고 자제키로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가격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1면) 대형 교복업체들이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교복업체 스마트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교복가격 인하 노력, 유명 연예인 활용 광고 및 관측활동 자제, 가격인상분에 대한 인화 등을 골자로 한 자율결의 내용을 공식 게재했다.

스마트는 우선 교복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초 14% 인상한 신학기 교복가격을 인상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으며, 지난날 30일 이전 구매고객

에 대해선 각 대리점별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이비클럽도 지상과 광고를 이달부터 전면 중단하고, 팬사인회 등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과도한 관측활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교복 출고가를 2007년도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타사와의 과도한 경쟁도 자제하기로 했다.

엘리트와 스포룩스 등 다른 교복업체들도 올 초 5~15% 인상한 신학기 교복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그러나 대리점마다 상황이나 학교별 제품가격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나 인하폭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남북의료협력재단 창립

남북의료협력재단 광주전남지회 창립총회가 4일 오후 3시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성 포럼 소통과 교류 회장과 김일환 나주방송 이사장, 구희구 서광주JC 20대 회장, 고규형 전 전남도의원, 이상출 치과병원 원장 등 중비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각계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전남지회장과 고문, 감사, 홍보대사 등을 선임하고 향후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에 '다목적 장애인복지관'

광주 동구에 '다목적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다.

광주 동구는 올 상반기 월남동 월남택지지구에 2천244㎡(680평)에 60여명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11년 상반기에 완공될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치료실과 다목적 체육실,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09학년도 9월학기 中國 명문대학 신입생 대모집

누구나 감수있는 아무나 감수없는 성공 중국유학!!

2008 중국대학 입학성 호전요령

1.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2009년 9월~12월)

대학명	학비	숙식비	총비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2.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2009년 9월~12월)

대학명	학비	숙식비	총비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중국유학 1년-2년제 대학	10000	2000	12000

2009년 2월 2일 대개강!!

리틀차이나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과정	수강료	입학비	총비
초급	10000	2000	12000
중급	10000	2000	12000
고급	10000	2000	12000

www.littlechina.co.kr